

부산 바다여행

부산은 바다고, 바다는 또 부산이다. 부산에서 만나는 세 가지의 바다. 그 바다의 매력에 빠져보자.



낮에는 도심속 일상 탈출

고층 빌딩 품은 바다서 이색 낭만 즐기고

축구·야구 스포츠 체험에 즐거움 한가득

◇해운대, 도심 속 탈출을 꿈꾸다.

해운대는 높은 파고와 장엄한 일출로 한국 8경으로 꼽힌다. 신라말 최치원 선생이 이곳의 절경에 감탄해 동백섬 바위에 자신의 호인 해운을 넣은 해운대를 새겨넣으면서 유래된 이름. 최치원 선생이 새겨 넣은 '해운대(海雲臺)'는 동백섬 등대광장 남단 바위에 뚜렷이 남아있다.

여름이면 낭만을 쫓아 찾아온 사람들이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 해운대는 화려하다.

호텔과 빌딩들이 해운대를 품고 즐지어 늘어선 이곳은 여름 뜨거운 낭만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센텀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도심과 접하고 있는 화려한 바다다.

걷기 열풍과 함께 해운대가 바빠졌다. 동백나무가 많고 해서 이를 지어낸 해운대 동백섬에 봄을 맞으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분주한 모습이다.

◇광안리, 빛과 한잔 술에 빠진다.

광안리는 밤에 더욱 빛이 난다.

광안대교에 불이 밝혀지면 비로소 광안리의 진짜 매력이 꿈틀거린다. 바다에 투영된 빛을 쫓아 걸음을 옮기면서 밤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밤바다의 낭만에 술이 빠질 수 없다. 광안리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회타운이다.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고르는 재미가 더해지는 곳. 입맛에 따라 고른 횡감을 가지고 위층 식당에서 푸짐한 술상을 차릴 수 있다.

좋은 이와 함께 하는 술, 밤바다의 운치까지 더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반짝이는 광안리 백사장에서 소곤 소곤 밤을 속삭이며 밤바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이기대 공원, 바다를 걷다.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 광안리와 달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명소다.

앞선 두 바다가 가볍게 걸음을 옮기기에 좋은 곳이라면 이기대 공원은 자연을 즐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가벼운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사뿐사뿐 바다를 걸어보자.

해운대에서 차로 10여분 거리. 장산봉 동쪽 산자락에 바다와 접하고 있는 이곳은 군 작전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됐다가 지난 1993년 개방됐다고 한다. 1999년에는 바닷가 바위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바닷가 해안 절벽에 조성된 올레길은 산과 바다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명소다. 공원이라고 하지만 산책보다는 등

산에 가까운 코스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순환도로와 오륙도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바다를 따라 길게 뻗어있다. 산속 산책로이기도 하고, 바다위 산책로이기도 하다. 숲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파도소리를 벗삼아 걸다보면 지루할 틈이 없다.

산과 바다, 자연의 멋에 흠뻑 취해 걷는 길. 고개를 돌리면 잇고 있던 도시가 한 눈에 들어온다. 산책길을 걸으면서 부산의 명물인 광안대교와 해운대 초고층 빌딩을 한 눈에 내다 볼 수 있다.

◇특색 튀는 재미

바다 여행만으로 지루하다면 부산의 스포츠 열기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

동래구 사직동 사직종합운동장에는 야구·농구·축구장이 한데 응기종기 모여있다.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흥겨움으로 들쭉인다. 특히 야구가 열리는 날은 잔치 한마당이 펼쳐진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의 환한 응원도 입소문이 났다. 주황색 봉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신문지를 찢어 만든 이곳만의 독특한 응원도구를 흔들며 시원하게 목청을 높인다 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시범경기가 진행되면서 부산의 야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야구일정에 맞춰 부산 나들이에 나서면 색다른 재미를 만날 수 있다. 새콤달콤 맛있는 밀면은 잊지 말고 찾아야 하는 부산의 별미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기대 산책길



사직종합운동장



밀면



밤엔 백만불 야경과 한잔술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산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

호남총판 광주 1호점

**안동 간고등어**

오른기념 3  
고등어먹고 제주도로!

10박스 이상 구매시  
제주도 왕복 항공  
여행상품권 증정 2인(2박3일)  
호도선물로 증정합니다!

안동간고등어  
선/물/박스 **₩12,000~**

제주도 2인 왕복항공여행권을 소지한고객만의 혜택

제주왕복항공요트무료여행권

요트투어 무료이용  
제주2박3일 일주여행  
삼수일투어 무료이용

렌트카무료

문의전화 **1577-4929**  
H.P 010-5760-9179  
**www.honamgodunga.com**

영업사원 및 딜러 대모집  
·여행 및 레저 사업부 0명 ·기업 특판 유통사업부 0명  
(주)에프론국제무역 / 히든여행사 광주점